

건강을 향한 끝없는 도전의 여정

(주)지멘스 헬시니어스 | 조율리 보건관리자

글 신경린 경북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사진 김재이

독일 포르히하임에 본사를 둔 (주)지멘스 헬시니어스는 건강관리 시스템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최대의 글로벌 기업으로 컴퓨터 단층 촬영, 자기 공명 영상 촬영, 분자 영상 촬영, X-RAY, 초음파 제품 및 영상 IT 시스템을 위한 진단 영상 분야의 최신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모두를 위해, 어디서든, 지속가능하게(For everyone. Everywhere. Sustainably)’라는 기업 목표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힘과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를 지원하는 건강한 기업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성장하다

경북 포항의 (주)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직원 수는 500여 명,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조율리 보건관리자는 작업환경에서의 안전 사고나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변화를 이끌었다. 병원에서 3년 근무했었던 조율리 보건관리자는 병원에서뿐 아니라 사업장에서도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주체적으로 계획하여 책임지는 ‘보건관리자’라는 직업에 큰 매력을 느껴 이 길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직원들의 안전과 보건 측면에서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단순히 법규 준수를 위한 것이 아닌 진정한 관심과 배려로 회사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직원들의 건강증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거예요. 건강증진 계획부터 시행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도전에 직면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조율리 보건관리자는 업무 영역이 넓은 만큼 플래너를 통해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다. “하루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정 관리’라며 회의나 프로젝트, 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들을 수시로 확인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조정한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속해서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조율하며, 법정 교육 진행 등 다양한 일과를 저만의 루틴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마치 일일 퀘스트를 하듯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면서 하루를 뿌듯하게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조율리 보건관리자와 함께하는 여정

조율리 보건관리자는 직원들의 건강 확보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거북목 스트레칭, 오피스 스트레칭 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다. 전문가를 초청

이달의 한마디

“중요한 건 끊임없는
변화에 맞춰
도전하는 시간”



하여 직원들이 자가 진단을 배울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원하는 다른 프로그램의 주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소정의 상품도 지급한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인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그 활동이 글로벌 뉴스레터에도 수록됐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저희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회사 자체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EAP 프로그램 ‘LifeWorks’를 통해 직장 및 일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이슈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LifeWorks’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 전반의 심리적 이슈 및 법률, 재무, 세무 등의 전문가 연계를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에서 매달 방문해 주셔서 직원들의 건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꼭 필요한 직원들은 해당 부서와 조율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변경하는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을 다하려 합니다.”

또한 (주)지멘스 헬시니어스는 노동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myCority’라는 글로벌 시스템을 도입했다.

회사 곳곳에 붙여진 myCority 포스터에는 QR코드가 같이 그려져 있는데, 노동자들은 QR코드와 URL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부상, 아차 사고, 사고 예방 등을 포함한 모든 사고를 보고할 수 있으며, 보건관리팀은 그 내용을 통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위험성 평가 진행 시 전 직원들이 모바일 설문을 통해 각 근무하는 공정에서 평소 제출하지 못했던 위험이나 가려진 위험 발생 요소 등을 직접 발굴하여



“
**항상 직원들의 편에 서서
 현장과 법적 요구 조건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공하고 싶어요**”



EHS로 설문한다. 보건관리팀은 그 설문 결과를 통해 현장을 조사하고 관리감독자 등과 함께 방법을 발굴하여 개선, 완화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관리자 분야는 변화와 도전의 연속

인구와 환경이 사회적으로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지켜야 할 법규도 계속해서 개정·시행되고 있다. 조율리 보건관리자는 그 변화에 끊임없이 맞춰 나가고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고 발굴하여 보건

분야에 기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보건관리자로서 도약과 열정에 대한 행보를 다짐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직원들의 건강을 촉진하는 등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직원들의 편에 서서 현장과 법적 요구 조건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공하고 싶어요. 분명히 생산과 안전보건은 상충하는 여러 요소가 있으니깐요. 여러분들도 끝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